

강진, 재능기부 통합시스템 “효과 있네”

시민사회단체별 재능 통합 봉사·지원 나서 효사랑 위문 공연·짜장면 무료급식 등 호응

강진군이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회단체 가입자 및 능 보유자들을 발굴해 재능기부 통합 시스템 운영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강진군이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회단체 가입자 및 능 보유자들을 발굴해 재능기부 통합 시스템 운영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문화·공연분야를, 사회단체와 민간봉사단체는 회원들의 재능을 살려 요리, 집

수리, 기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배치하고 있다. 지난 15일 군동면 복지회관에서는 사회봉사단체가 합동으로 독거노인과 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사랑 위문공연과 짜장면 무료 급식 봉사활동 등 재능기부를 전개해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 위문공연에 이어 청록회 이형철 회장과 새마을부녀회 등 사회단체가 합동으로 효사랑 위문공연과 짜장면 무

료 급식 봉사활동을 군동면에 이어 11개 전 읍면을 순회하면서 재능 기부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강진군 ‘작은 사랑 실천을 위한 재능기부 나눔센터’는 다양한 재능을 기부받아 유형별로 관리하고 알선하는 한편, 재능 기부문화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료비, 보험료 등 재능기부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강진 주작산 자연휴양림 관광객 북적 한옥펜션 멋·자연 정취 살려 리모델링

지난해 전국 100대 산림경관지로 선정된 강진군 신전면 소재 주작산 자락에 위치한 자연휴양림이 관광객과 산악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주작산 자연휴양림은 지난 2007년 휴양관 1동 10실로 개장한 뒤 최근 숲속의 집 12동을 신축하고 휴양림 입구의 기존 한옥펜션 11동을 전통의 멋과 자연의 정취가 살아나도록 리모델링한 바 있다. 주작산 자연휴양림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음이온과 피톤치드 방사량이 높아 웰빙 휴양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질 다른 얼굴의 등산로로 유명한 주작산은 백두대간의 기원이 월출산과 덕유산은 지나 어귀에 8명당이 묻혀 있는 산으로 각종 기암괴석과 야생화, 초원, 역새, 설화 등으로 계절별 다양한 모습의 산세를 자랑하고 있다. 봄에는 바위틈새 진달래, 철쭉이, 여름에는 능선에서 바라본 다도해의 푸른 풍경과 누렇게 익은 보리밭, 가을이면 초원의 억새풀과 바위틈 단풍이 장관을 이룬다. 특히 봄철 등산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바위틈새 피어나는 진달래 풍경과 다도해를 관광하면서 걷는 산책(등산)로가 일품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나주시의원 6명, 작년 조례발의 ‘0’

최다 발의 의원 7건... 대조적

나주시의회 의원 14명 가운데 지난해 대표의원발의 조례안이 단 한 건도 없는 의원이 6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이 7건이나 돼 의원 간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 처리 실적 가운데 의원 발의가 17건, 시장 제출이 39건 등 모두 56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처리와 승인 동의안12건, 기타 35건 등 118건을 처리했다. 17건의 의원발의 가운데 초선인 무소속 장형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는 민주당 소속 정찬걸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학교폭력에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었다. 그러나 6명의 의원은 단 한건도 의원발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주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호응도 낮았다. 지난해 초 7명의 의원들이 8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왔던 호우와 뉴질랜드방문은 의정활동 사항에서 누락시키기도 했다. 시민 김모(50·대호동)씨는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시민혈세를 받고 있는 의원들의 의정평가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철한기자 chjung@



장성군 보건소가 16개소 경로당의 마을 산책로를 비롯한 삼계수변공원과 황룡강 둔치공원, 장성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 걷기코스를 개발해 매주 1회 장성스타일 걷기 운동을 실시해 인기를 끌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강진, 귀농·귀촌 희망자 ‘팜투어’ 실시

강진군이 귀농·귀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개인 희망자를 선착순 접수받아 다음달부터 매달 1차례 1박2일 일정으로 ‘팜(Farm) 투어’를 실시하기로 했다. ‘강진 팜 투어’에 참여한 도시민들은 선도농가, 선배 귀농인의 농장을 직접 방문해 농촌에 적응하기 위한

사려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단위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청자 부담은 현재주지에서 강진군농업기술센터까지 왕복교통비로, 1박2일 투어 차량비와 식비, 숙박비 등은 군에서 지원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나주, 송재사 등 9건 향토문화유산 지정

나주시는 17일 “지난 11일 사항도 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열고 심의대상 11건 가운데 집성사, 송재사, 이용재 정려각, 제주양계 효열각, 영호정, 양병정, 나주임씨 대종가, 임씨 신도비, 태평사 마에보살좌상 등 9건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향토문화유산들은 나주의 상씨들의 활동이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온 과정을 잘 보여주는 송재사와 집성사 등의 유적과 정유재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충신과 열녀를 대표하는 이용재, 제

전북

농·임·어업 창고 짓기 쉬워진다

군산, 시민편의 증진 도시계획조례 개정 소규모 농어업시설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군산시가 농·임·어업 창고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최근 공포했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에서 소규모 농가창고를 짓기 위한 개발행위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는 등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17일 “개발행위 680㎡ 이내의 소규모 농·임·어업 창고시설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시·군의 조례로 위임했고, 이에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청렴성 검증 강화를 위해 청렴서약 제출을 의무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

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결과와 회의록 공개시점을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농어촌지역에 설치하는 식품공장의 의미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해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명확화하는 등 2건 부분명칭만 법령 문구를 제외했다. /군산=박금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남원-화장품업체 림포디아

노암 농공단지 입주 MOU

남원시는 17일 시청 회의실에서 (주)림포디아(박이경 대표)와 노암제3농공단지(화장품집적화단지)에 화장품 업체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

순창 장류체험관 인기 ‘짱’

체험 메뉴 다양화... 관광객 매년 증가

지난 2006년에 개관한 순창 장류체험관의 체험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17일 순창군에 따르면 개관 이래 체험객 방문수를 분석한 결과 2007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08년 8800명, 2009년 1만1800명, 2010년 1만4200명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에는 1만7500명, 지난해는 1만7600명이 찾아 2007년 대비 3.5배에 달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

이순창 장류체험관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365일 쉬는 날 없이 안내 데스크를 운영하고 숙련된 체험 진행 인력의 보유, 방문 체험객에 따라 체험 메뉴를 다양화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수확여행단 학생들에게 전통인절미 떡치기, 전통튀밥 만들기 등 옛것의 다양한 체험을 선보임으로써 더욱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여기에 장류연구소와 장류박물관을 연계한 장류 인프라 구축과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는 강천산 군립공원의 명성도 장류체험관을 찾는 방문객들이 선호하고 있다. 군 장류사업소 박동규 담당은 “순창장류체험관은 친절과 신뢰에 바탕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전통장류 외에도 순창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300만명 관광객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 가로등 통합제어 시스템 구축

정읍시는 가로보안등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보안등 통합 원격제어 감시시스템(이하 통합 감시시스템 설치사업)’을 구축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통합 감시시스템 설치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3년 지역에너지 절약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 시비 3억 6000만원을 더해 총사업비 7억 2000만원을 들여 추진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시는 보안등과 일부 가로등에 감시점멸기를 설치하고 원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지난 15일 착공에 들어갔고 오는 10월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동지역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체계적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5600만원을 투입해 가로등에 대한 원격제어 감시시스템 설치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미당 시문학관 재개관 고창군은 지난 16일 부안면 선운리에 소재한 미당 시문학관의 전시환경을 재정비하고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강수 고창군수, 박래환 군의회 의장, 우하 서정태(90) 시인, 재단법인 미당 시문학관 대표 법만 스님, 이사 대우 스님, 송영래 문화원장, 정철수 전 농식품부 차관, 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단신

남원, 기후변화주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는 제5회 기후변화주간(4월 18~24일)을 맞아 싹싹데이, 패밀리 데이, 불빛 없는 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우선 기후변화주간 동안 시청 구내식당에서 식사시 잔반이 발생한 경우 벌금 500원(지구를 아껴주세요에 대한 세금)을 자율적으로 모금한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

18일에는 직원의 정시 퇴근을 독려해 야근시 소비되는 컴퓨터, 복사기 등 전기 이용으로 인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패밀리데이’와 공공기관 및 각 가정에서 30분 간 소등을 통해 지구에게 숨을 불어넣는 ‘불빛 없는 밤’을 실시한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

전주평생교육원, 장애인 편의 책나래서비스

전주평생교육원은 몸이 불편해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원하는 도서를 집까지 배달해 주는 책나래서비스를 실시한다. 책나래서비스는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업무협약 체결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지식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고자 실시하는 우편대출서비스로 대출과 반납이 우체국 택배를

통해 이뤄지며 모든 경비는 무료다. 기존에 시각장애인(1급~6급)과 청각·지체장애인 1~2급으로 한정됐던 이용대상이 지난 1일부터 신장, 심장, 뇌병변장애인 1~3급까지 확대됐으며,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누구라도 도서관에 전화하면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 /전주=박금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군산, 재정집행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군산시가 2013년도 국정평가지표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정집행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재정규정 집행은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광역시도와 시, 군, 구 등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SOC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매년 재정규정집행 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단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재정규정집행 대상사업 5604억원 중 지난해 말까지 2013억 원(35.9%)을 집행했다. /군산=박금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정읍, 주민소득지원기금 51명 선정

정읍시는 지난 15일 농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기금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신청한 51명에게 7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51명은 17일부터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를 방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신용조회 후 가구당 2000만원 이내 금액을 연이율 2%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하반기에 천재지변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1억 5400만원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